

東三省總司令部 訪問 張學良氏 會見記(一)

新進 外交家 陶尚銘氏와 其他 人物

李灌鎔

二十一日 東三省保安總司令部 秘書로서 張學良氏의 가장 信任한다는 陶尚銘氏를 그 私邸로 訪問하였다. 氏를 마침 『야마도』호텔 食堂에서 만나게 되어서 미리 맞춰 두었든 것이다. 그 私邸는 新市街에 잇는 한 洋屋으로서 外觀으로는 別로 奢侈스러울 것이 업지만 內部 修裝으로는 아마 朝鮮에서 보기 들을 것이다. 氏는 아직 四十三, 四歲쯤되는 少壯 政客으로 中國 最近 政變에 功이 만타는 有名한 故 陶大均氏의 長男이다. 陶大均氏는 本來 浙江省 出生으로 日本에서 多年 公使館 通譯生으로 잇다가 日淸戰爭 後에 李鴻章과 가티 馬開條約 會議席上에 參席하였고 그 후로는 多年間 李鴻章의 顧問 兼 通譯生參으로 잇섯다. 義和團事件 後 講和事 談判에도 參席하였거니와 日露戰爭 中 外交도 그가 指揮하다십히 하였다한다. 그後 東三省總督張, 交涉使, 北京外交部作左承霖旨, 江西省 按察使 等 一生에 써날새 업시 榮職을 가졌든 人物이었다.

陶尚銘氏는 일찍이 日本에서 早稱田大學을 마치고 北京에잇는 津浦督 辦公所의 委員으로 잇다가 民國 元년에 奉天 省都 參張銘物變의 交涉秘書의 職을 가졌섯고 民國 七年부터 十三年까지 交涉署 日本課長, 그 後에도 北京外交部의 參事官과 張作霖 鎮威上將軍 公署의 談議의 重任으로 잇다가 大元師部의 外交秘書까지 되야서 只今 東三省에서 有數한 外交家이다.

내가陶氏를 訪問한目的은 張學良氏를 만나 그의 時局에 對한 意見을 들을 機會를 맨들고자 함이다. 그러나 氏는 意外에 在滿 同胞問題에 對하여 汲히 생각하는 點이 만었다. 『우리는 決코 사람을 排斥하고 십지는 안습니다. 朝鮮사람들이 여기와서 外交問題를 일으키지 안는 範圍안에는 우리가 무슨 卞

답으로 그들의 經濟的 生活을 妨害하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뒤에는 여러 가지 複雜한 外交問題가 쌓아오니까 우리도 귀찬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組織的으로 迫害한 일은 업습니다. 地主 몇 個人의 所爲를 一般化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부터 이 問題에 對하여 一定한 政策을 決定하겠스니 당신네들도 具體的 背景이 잇거든 말씀하여 주시요. 만일 지금이라도 意見書를 曼드러 來日 總司令 만날 새 提出하여두면 어셔겠슴닛가』한다. 나는 지금 이러한 意見書를 作成할 틈이 업으므로 後日 眞相을 充分히 調査하여 보내갠다한 즉 『꼭 그래 주시요. 우리는 誠方을 다 하겠슴니다』하고 約一 時間이나 談話하다가 이러슬새 『지금 朝鮮, 中國, 日本 할 것 업시 우리들 靑年이 協同하여 勞力하면 東洋에는 別問題업습니다. 한번 잘해봅시다』하고 流暢한 日本말로 하였다. 오래간만에 젊은 中國사람과 재미있게 談話하고 나서 歐美에서 逐日相從하던 中國革命의 巨頭들을 回想하고 愉快한 感動이 업지 안었다.

× × ×

翌朝 (二十二日) 十時頃에 다시 陶氏를 訪問하고 곳 陶氏의 家用 自動車로 城內에 잇는 總司令部로 들어갔다. 司令部 門을 들어서서 다섯個 以上の 門을 들어갈 새마다 派守兵들이 軍隊式 敬禮를 하여 兵營에 들어가는 感想이 생기었다. 이 방 저 방 다니다가—방마다 官吏侍者 등으로 꼭 찬 것 갖했다. —나중에 가장 조용한 會議室이라고 써붙친 큰 방 옆에 잇는 방으로 들어간 즉 內部 修裝은 別로 奢侈스러울 것 업스나 何如間 純 中國式이었다. 北京에서 孫中山이 돌아가든 顧維鈞氏의 私邸를 구경한 일이 잇는데 그것에 比하여는 돌이켜 儉朴하게 뵈었다. 그런데 怪常히 녀긴것은 그 방안에 寢室하나가 잇는데 그 바닥에는 우리 朝鮮農村에서 볼 수 잇는 「삿자리」가 깔린 것이다. 아모리 생각하여도 그 由來를 몰으갠으므로 나중에 들어본 즉 清代 皇室에서는 代代로 내려오면서 比단옷을 입지 말라...奢侈를 禁하는 遺言이 잇섯는데 방안에 主人자리를 깔라는 것도 그 중 하나라 한다.

조금 잇드니 身體 肥滿한 紳士한분이 들어왔다.